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27호(97/3/15)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interpia.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만일 제 자식이 이번 일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2월 25일 취임 4주년 담화

‘재미없는 인권하루소식’을 위한 변명

서준식 (대표)

충격적인 사건들이 숨쉴 틈도 주지 않고 뱅뱅 터집니다. 심심치는 않지만 까딱 잘못해서 불감증에 걸릴 것을 걱정해야 하는 요즘입니다. 온통 국민들의 관심이 그 엄청난 사건들에 쏠려 있고 저 또한 자꾸만 울화통이 터져 인권운동가가 아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악귀처럼 그 사건들 한가운데로 뛰어들고 신나게 몸을 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인권전문지’... 참, 무슨 배짱에서인지 돌이켜 보면 꿈 한번 야무지게 꾸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저는 인권하루소식은 큰 제목만 건성건성 훑어 보고는 그렇게도 경멸해 마지 않는 ‘제도신문’ 정치면에 코를 박고 지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권전문지’의 격조[格調]가 완전히 답답한 ‘애물단지’입니다.

- 운동성과 전문성 사이의 딜레마

“인권하루소식이 재미 없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 올 때 저는 고민에 빠집니다. ‘독자 배가운동’에 참담하게 실패할 때나 구독료 장기 체납자들에게 죽어라고 전화를 돌려대는 데도 바위처럼 반응이 없을 때 더더욱 이 고민은 심각합니다.

물론 “재미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저는 받아들이고 하루소식을 재미 있게 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고민을 열심히 합니다. 다소 싸가지 없는 기자를 한명 더 늘리고 보다 생생하고 기발한 리포트를 연재해 보겠다거나 기지 넘치는 칼럼을 쓸 수 있는 필진을 확보해보겠다거나 포맷을 보다 산뜻하게 바꾼다거나 하는 따위가 그런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노력으로써 인권하루소식은 어느 정도까지 재미 있는 신문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말한다면 인권하루소식이 재미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권하

루소식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인권전문지’를 지향한다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치’에서 동떨어진 ‘인권’이 별로 재미가 없는 ‘종목’일 뿐 아니라 ‘전문지’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재미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생각하면 ‘전문성’과 ‘운동성’ 사이에는 늘 묘한 괴리현상이 존재하고 ‘인권’과 ‘정치’ 사이에는 야릇한 적대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지 정치를 몹시 즐기는 우리 백성들에게 흔히 **재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운동성’ 쪽이요 ‘정치’ 쪽입니다.

결국 ‘재미’로 말할 것 같으면 인권하루소식은 본래 결정적인 한계를 안고 태어난 셈이요 인권하루소식은 하필이면 고르고 골라서 별로 신나지 않는 고약한 길을 걷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 딜레마는 바로 피범벅이었던 군사정권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주먹구구식일 수밖에 없었던 인권운동을 탈피하고 한국 인권운동의 수준을 높여 보겠다고 마음먹은 인권활동가 집단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딜레마에 다름이 아닙니다.

- 인권현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통찰과 절묘한 조화

수많은 시행착오의 안개 속에서 인권하루소식이 (재미 없는 대로) 이제까지 우리의 인권운동에 기여해온 바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한계까지도 기쁘게 짊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한계마저도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를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과 ‘운동성’ 사이의 괴리현상, 그리고 ‘인권’과 ‘정치’ 사이의 적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전문성’과 ‘운동성’은 하나이어야 하고 ‘인권’과 ‘정치’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저는 희망을 느낍니다.

아직도 말을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인 인권하루소식의 ‘전문성’이 한발짝 한발짝 전진하고 무르익으면서 ‘운동성’과 어색함이 없는 조화를 이룰 날이, 그리고 아직도 미숙한 우리의 여러 인권현상에 대한 인식이 깊은 정치경제학적 통찰과 절묘한 조화를 이룰 날이 다가올 때 인권하루소식의 발전을 가로막는 ‘재미’의 벽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 유서사건 총자료집을 무료로 기증합니다. 필요하신 분 빨리 연락주십시오.

사 / 업 / 보 / 고

(97년 2월 셋째주부터 3월 둘째주까지)

인권하루소식을 재미있게, 월간 정론지 필요

<인권하루소식> 발전을 위한 토론회 열려

지난 3월 5일 서울시청 옆 성공회 성가수녀원에서 발표자 등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권하루소식〉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하루소식>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 질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서준식 대표는 <인권하루소식>의 창간 배경과 인권운동에서의 <인권하루소식>의 역할을 짚고 나서, 현재 <인권하루소식>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서대표는 △팩시밀리신문이라는 형식으로 인해 지면, 선명도, 깔끔한 포맷을 만들지 못하는 점 △독자 확대가 안되고 있다는 점 △지면의 한계로 심층성 있는 보도를 못한다는 점 △취재력과 기동성의 문제 △수도권 중심이고 전국적인 상황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 등을 어려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집중적인 기획기사를 통해 심층성과 현장성 강화

이에 대해 백병규(<미디어 오늘> 편집장)씨는 “발간형태 및 발행방식의 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태에서 동원가능한 주변자원 및 지원 등을 극대화하는 방안에서 개선 및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인권·사회·시민·노동단체의 적극 참여유도를 통한 정보망 확대 △각 단체 및 자유기고가, 프리랜서 집단의 참여 적극 유도 △집중적인 기획기사를 통해 심층성과 현장성 강화(이는 재정 및 인력의 문제가 큼)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유도, 인권문제에 대한 해설 및 평가기능 강화 △인권감시보고서로 연간보고서 작성(->인권하루소식의 성과를 집대성) △통신서비스 강화 (1차 자료를 별도서비스, 예: 중앙일보에서 더 자세한 자료는 통신을 보시오 하는식. 이를 유료화한다) 등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바른통신모임의 대표인 김형준씨는 'PC통신시대의 <인권하루소식>'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국내소식과 관련한 영문소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의식적으로 후원 확보를 위한 광고를 게재하고, 취재망 확보방안으로 각 단체들이 발행하는 온라인전자신문을 취합해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장기적으로 인권운동사랑방과 하루소식관계

를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마케팅 전략에 대해 김거성목사(기독교컴퓨터센터 소장, 자문위원)는 재정 문제에 대해 생존과 결부된 절실한 자세가 요청된다면서 ① 틈새시장-하루소식의 잠재적 독자층- 확보 노력 ② 전문영업인력의 활용 및 인센티브제(예: 구독료 입금총액×25%) 등의 독자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후원회 활동과 독자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부수적 서비스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월간지에서 심층성을 충족하도록

포맷 혁신과 주간지화, 월간지화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한 <월간 말>의 김경환 기자는 현재 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 월간지에서 심층성을 충족해 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자는 포맷의 형식 변화는 제한적·부차적 문제라며 참신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심층보도, 특정사안에 대한 분명한 주장등 내용성 강화가 중요-취재력과 고급필자 확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발표자외에 참석한 이들은 주로 “일상사건을 쫓아가기 바쁜 신문으로는 부족하고 사건을 만들어가는 신문, 캠페인사업의 적극화, 도표나 만화, 사진 활용 등 포맷이 더욱 다양화되어야 한다.”(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재미가 없다. 하루소식 독자확대에 있어서는 강도기질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지로서의 월간지 반드시 필요하다.”(권낙기 선생님) 등의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들은 <인권하루소식> 또는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독자 또는 인권운동에 관심있는 인사들의 애정이 담긴 지적과 충고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권운동사랑방이 이들 전문가들과 독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무국부터 <인권하루소식>의 발전을 위해, 또 이와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고민할 것입니다. 운영위원, 자문위원 여러분들도 애정어린 비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하루소식> 포맷 변경/시평, 영화평 게재

지난 3월 11일자부터 <인권하루소식>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글씨체를 신문명조체로 바꾸고, 글자 호수를 키웠으며, 3단 편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매주 수요일자 <시평>을 신설하였고, 격주 수요일 <영화평>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뜬문뜬문 나가던 <인권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세계의 인권> 시리즈도 착실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시도들이 독자들에게는 그래도 부족한 것이지만, 나름대로는 새로운 실험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획이 있으면 과감하게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바뀌어진 포맷과 기획에 대해 의견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4월말 혜화동으로 이사, 근무 환경 좋아질 듯

사무실을 4월중으로 혜화동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사를 위해 사무실을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는데, 이번에 마침 알맞은 곳이 나와서 3월 14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 뒷편으로는 전철과 국철이 다니고, 앞으로는 8차선 도로가 있는 관계로 진동과 소음, 먼지가 엄청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 통신을 하다 보면 자주 접속이 끊겼고, 소음은 작은 소리로는 대화조차 못 나누는 형편이었습니다. 또한, 건물이 낡다 보니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발생하여 근무 조건으로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이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고, 4월이면 마침 지금 있는 사무실이 빠지게 되어 이사를 결행하게 된 것입니다.

혜화동 사무실은 실평수 25평으로 지금 사무실보다는 약간 작은 편(현재는 실평수 30평)이고, 4층(현재는 3층)이지만 건물이 올리는 진동은 없고, 소음도 현격히 적습니다. 또, 건물도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이번에 계약한 조건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60만원(현재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8만원, 이중 보증금 1천만원은 민주법연 것)이고, 관리비가 3만원 정도입니다.

4월말까지 이사를 완료할 계획인데, 혜화동 사무실에서 보다 알찬 내용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의 지향을 펼칠 수 있도록 사무국 활동가들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법연에게도 계속 사무실을 같이 쓰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 제1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 해산

제1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12일 다수의 집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제1회 집행위원회는 영화제 결산을 완료하였으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서로 아낌없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집행위원회는 그 소임을 다하였고, 제2회 집행위원회는 다시 사랑방에서 위촉하여 구성될 것입니다.

올해의 제2회 인권영화제를 위한 준비도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데, 올해는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둘째주에 열리므로 이보다 빠른 9월말경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해는 무려 10여종의 영화제가 진행됩니다. 3월 대학 영화축제, 4월 서울여성영화제, 6월 환경영화제 등 그야말로 영화제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사회단체들이 영화제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제1회 인권영화제의 자극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 『법과 인권』 교재 발간

광주여대 김동한 교수(운영위원)의 요청으로 정보자료실에서는 『법과 인권』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마스터 인쇄로 만든 이번 책자에는 인권개념, 인권의 역사,

주요 국제인권 기구 및 조약, NGO론의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기초 학습에는 필수적인 것만들만 추려 놓았습니다. 부록으로는 세계인권선언·사회권 조약·자유권 조약·여성철폐조약의 전문 등이 실렸습니다. B5 크기에 총 274쪽으로 이루어졌고, 권당 1만원씩 판매합니다.

<사무국 업무 보고>

▲ 정보자료실: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의 폭주와 아울러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확정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아무래도 한달 가량 늦은 4월경에나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될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면 보다 완벽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 홍보실: 갖가지 산고 끝에 <인권하루소식> 합본 제7호가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합본 7호에는 96년 하반기 인권상황을 정리한 머리글과 연세대 사태를 정리한 글, 전,노 재판에 관한 글 등이 추가로 실리게 됩니다. 곧 여러분께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또한, 홍보실에서는 정보자료실의 협조로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인터넷에 매주 수요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주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한글로 된 <인권하루소식> 기사 전체와 주요인권흐름과 주요 기사들이 영역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 교육실: 95년부터 추진했던 어린이의 권리와 관련한 책자가 곧 출판사에서 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교육실장의 부재로 인해 중단되었던 이 책자 발간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교육실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얻어 막바지 교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 가제로는 『어린이의 인권, 세계의 약속』으로 정했고, 출판사와 교섭 중입니다. 아울러 서울대 미대 산업디자인과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표지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책자에는 어린이의 권리 대한 논문과 풍부한 자료들이 실리게 됩니다.

▲ 총무부: 총무부에서는 <인권하루소식> 시평을 각 대학 학보사에 게재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대학 학보사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이나 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원고료는 필자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3개 대학 학보사만 계약한 상태입니다.

한편, 반상근으로 국제연대를 담당했던 안미혜씨가 3월 10일부터 취직했습니다. 따라서, 안미혜씨는 자원봉사자로 결함, 영문 주간 흐름을 맡아주기로 하였습니다.

<동정>

◇ 장호순 운영위원: 3월부터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처는 0418) 530-1200입니다.

<유서사건 총자료집>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 자문위원 여러분.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6년이나 흘렀습니다.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언론들이 “세기의 재판”, “한국판 드레퓔스사건”이라고 떠들어댄 이 사건은 결국 강기훈씨에게 3년형이 선고됨으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드레퓔스사건 처럼 이 사건의 진실이 10년 후, 20년 후에라도 반드시 밝혀질 때가 있다고 믿은 몇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일념으로 1년 이상을 이 일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결국 1993년 말에 총 2500쪽에 이르는 <유서사건 총자료집>을 완성시켰습니다. 10만원을 받고 배포했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웠는지 그리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니다. 강기훈씨사건의 모든 기록, 즉 조사과정과 재판과정의 공식기록은 물론 각종 성명서, 신문·잡지 기사, 각종 필적감정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기록을 집대성한 이 귀중한 자료집이 수십권이 남아 사랑방 자료실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재고 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에 이 자료집을 평소 우리를 아껴주시는 운영위원, 자문위원 여러분께 무료로 나누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송료 정도만 나중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이 자료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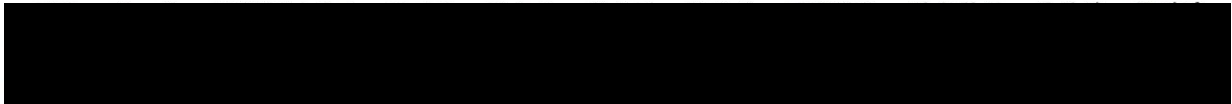
97-02분기 재정보고('97 01/16-02/15)

전기이월 4,587,505원

수 입		지 출	
자문·운영위원회비	2,076,900	활동비	4,325,000
하루소식 구독료	1,670,900	사업비	160,000
후원금	360,000	발송비	469,870
사업수익	250,100	사무비품	229,960
기타수익	391,800	사무실유지(집세포함)	695,808
		자료구입	65,000
		야근자·자원봉사자 식대	381,640
		전화요금	914,810
		사무기기	2,630,000
		복사비	144,240
		기타	157,000
계	4,749,700원	계	10,173,328원

최종결산: -836,123원

<97년 1월 운영, 자문위원 회비납부자 명단>



(가나다순, 존칭생략) * 표기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7-03분기 재정보고('97 02/16-03/15)

전기이월 -836,123원

수 입		지 출	
자문·운영위원회비	2,047,400	활동비	4,325,000
하루소식 구독료	2,206,100	사업비	1,014,370
후원금	300,000	발송비	545,280
사업수익	731,200	사무비품	147,350
은행이자	1,274	사무실유지(집세포함)	575,722
차입금	4,200,000	자료구입	142,800
		야근자·자원봉사자 식대	293,810
		전화요금	763,900
		사무기기	447,000
		복사비	8,430
		기타	2,028,300
계	9,485,974원	계	10,291,962원

최종결산: -1,642,111원

<97년 2월 운영, 자문위원 회비납부자 명단>



(가나다순, 존칭생략) * 표기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